

# 지역어의 자질과 서사 문체의 감성\* \*\*

—그 역학을 묻는 시론—

장일구(전남대)

## 〈 목 차 〉

- |                              |                       |
|------------------------------|-----------------------|
| 1. 문제와 단서                    | 4. 지역어의 감성과 서사 문체적 자질 |
| 2. 지역(성)의 자질과 언어의 층위·역학      | 5. 지평                 |
| 3. 담화의 사회언어학적 역학과 지역어의 문체 영향 |                       |

## 1. 문제와 단서

이 글은 지역어가 부르는 서사 문체적 효과 또는 서사 문체의 자질이 구성되는 데 미치는 지역어의 영향에 대해 논급하는 장이다. 이를 펼치기 위해서는 지역 또는 지역성의 자질과 언어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통해 기저의 전제를 마련해야 한다. 대개 표준어로 환언될 중앙어에 대척적인 지역어의 개념과 자질을 논급하기 위해 개념적 대응항을 세워 그 층위 간의 역학 관계를 논급하여 제이의 전제를 얻는 것이 수순이다. 지역어의 자질과 유형 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지역어가 다채롭게 채용된 소설에서 문체 효과를 내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6).

\*\* 이 논문은 <지역어와 한국 어문학>을 주제로 열린 '제53차 한국언어문학회 정기 학술발표대회'의 '주제발표'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거나 문체 자질을 구성하는 데 작용하는 지역어 구사의 기제(mechanism)를 논의의 구심으로 삼는 방법적 거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문체에 관해서는 언어 수행의 한 국면으로서 구성되는 문체의 효과나 언어 운용의 기제를 다각적으로 논급할 방법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지역어의 문체 자질과 효과 등에 대해 논급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언어에 관한 논리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다채로운 담화의 상황과 이에 작용하는 조건들의 역학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야기거리(story)에 담긴 전언(message) 자체보다 이야기의 소통 과정에서 감화와 인식 작용을 부르는 이야기 방식과 전략[discourse]이 관건인 서사의 문체에 대한 관심은 감성 문체론(affective stylistics)<sup>1)</sup>에 수렴될 여지가 다분하다. 서사 텍스트의 일반적인 문법 구조에서 이탈하여 변형된 언어 표지들을 아울러 문체의 형(型)을 추론하는 구조주의 문체론으로는, 다각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작용하여 조성된 담화 상황을 구현한 서사의 문체 자질을 온전히 포괄하여 논급할 방법을 얻을 수 없다. 다채로운 담화 상황이 구현된 서사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물음으로써 문체 효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체 요소의 구조적 형태를 추상하여 제시하기보다는, 서사 담화의 회로에서 작동하는 서사 대리자(agent)들<sup>2)</sup> 간의 영향 관계를 통해 빚어지는 감성(affection)<sup>3)</sup> 기제를 추론할 방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지역어의 문체 자질에 관여될 감성의 차원이나 지역어가 쓰이는 담화 상황에 개재된 사회언어학적 조건, 문학적 언어 수행 과정에서 작동하는

1) Stanley Fish,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Harvard UP., 1980, p.21 이하 참조.

2) 내포작가, 서술자, 초점자, 인물, (내포)독자 등 서사 담화에 연관된 항들.

3) '감성'이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나 정서적 취향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여러 양태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표현과 반응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 기제를 대표하는 술어이다. 이는 '이성, 논리, 구조'와 같은 중심의 가치를 해체하는 상대적이고 구성적인 개념을 대변하는 술어이기도 하다. '감성 문체론' 또한 이와 연관되는데 이를 '영향 문체론'이라 번역해도 좋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감성'의 개념 범주와 그 발현 기제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조태성의 「감성의 발현과 그 방식, 과장 혹은 스펙트럼」(『감성연구』 창간호,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 2010) 참조.

지역어의 동력 등에 관한 논의의 여지를 묻는 일과 맞물린다. 이러한 도정에서 수렴한 방법적 단서를 적용하여 몇몇 텍스트를 해석하는 시론을 통해 논의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 2. 지역(성)의 자질과 언어의 층위·역학

지역의 구분은 자연발생적인 요인에 의해 자명하게 주어지는 면이 있는가 하면,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문화적 기제에 의해 구성되는 면이 있다. 천혜의 장소에서 정주하며 농경 생활을 영위하던 때라면 경계로 구획된 일정한 지역의 범위 내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 제도는 물론 사회적 관계망과 문화적 수행의 영역이 그 범위에 걸맞게 결정되기에 ‘지역적 경계’는 인간 활동에서 중대한 관건이 된다. 이에 비해 제도적 분화가 다차원에 걸쳐 이루어진 현대 세계에서는 인위적인 요인에 따른 지역적 분화와 재편 현상이 두드러진다. 삶의 전역을 규정하는 일정한 구획의 지역적 경계가 무의미해지며 인간 활동의 영역이 혈연·지연 귀속적 지역을 벗어나 정치·경제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빚어진다. 이러한 지역 편중이 중심의 과밀화를 부르는 한편, 이에 수반된 정치·경제적 힘의 불평등 관계가 심화됨으로써 사회 관계망이 기형적인 양태로 구성된다. 이런 상황에서 빚어진 문화적 기반구조(인프라 : infrastructure)의 심각한 불균형이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다한 문제 가운데 한 구실을 이룬다.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심과 주변의 양극화 현상이 과생되는데, 양극화가 단적인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중심의 가치가 공적 영역은 물론 개개 삶의 영역을 장악하는 형국이 연출된다. 사람들은 활동의 전 영역에 편재한 ‘표준화’의 표지들에 걸맞은 방식을 체득하여 삶의 지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교육 제도는 표준화의 거점이 되는데, 그 구실에 언어의 표준화 교육이 자리 잡는다.

언어가 인간의 사고 과정에 작용하는 것은 물론 의식을 구성하는 매체라

는 견해<sup>4)</sup>를 전제로 하자면, 표준화된 언어 체계와 규범을 학습하는 일은 표준화된 가치와 규범에다가 전인격적인 차원의 개아(個我)를 껴맞추어 환원하는 사태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표준어는 단순히 언어만의 층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영역과 이에 작용하는 문화적 수행의 전반에 걸쳐 단방향의 일의적 가치를 기준으로 조장함으로써 사회·문화적 과정에 힘을 미친다. 이로써 표준어에 관여된 제도와 교육, 그리고 표준어 중심으로 진행되는 언중의 언어 수행은 중심 지향의 담론을 파생시키는 구심이 된다. 이러한 중심주의(centricism) 담론이 중앙 집권적인 정치 제도와 경제 활동의 양상과 어우러지면서, 중심과 주변의 대극은 '양극'이라는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중심에 쏠린 가치와 제도적 기반만 극대화된 현황으로 변질된다.

표준어 자체가 일정한 지역의 언어를 표준화하여 규정한 언어 체계로서 규범이고 제도이다. 원체 자연발생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합의된 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얻은 체제이다. 표준어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언어 수행 양상을 여러 층위에 걸쳐 정제한 조작적 실체(substance)인 것이다. 그 실체만이 온전한 표준이며 이에서 벗어난 실제 수행의 양태들은 비규범적인 현상으로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언어의 표준화는 표준어 권역과 그 외 지역의 격차뿐만 아니라, 표준어 권역 내의 지역적 격차마저 조장한다.

표준어에 관여된 중심과 지역의 격차는 언중의 계급·계층적 격차에 연루되면서 문화적 층위에서 새로운 문제 양상을 빚는다. 이를테면 국어 표준어는 '서울 말'이기도 하면서 '교양 있는 이들'이 구사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한정이 모호하지만 '교양'의 포괄적인 어감 탓에 표준어는 단순히 지역적인 영역에 관한 규정만이 아니라 문화적 소양에 관한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표준어를 통해 제기되는 중심과 주변의 지역적 격차에 관한 문제가 문화적 불

4)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세계를 구성한다는 구조주의·포스트구조주의의 기본 전제에서부터, 언어의 구조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결정한다는 사피어-워프 가설, 언어를 존재의 집으로 보는 실존론적 해석학 등에 이르기까지 언어가 단순한 반영의 매체만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구성하여 세계관과 실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체라는 견해는 저변이 넓고 단단한 편이다.

평등 구조에 관한 문제로 비화되는 국면이 펼쳐지는 셈이다. 표준어는 '세련되고 품격 높은 언어'이고 표준어 권역 이외 지역의 언어인 방언은 '촌스럽고 품위 없는 언어'라는 선입견이 실로 있는 터,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에 관한 생각이나 담론은 지역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또는 정치·경제적 계급·계층의 차원에 연관된 현상이다.

따라서 언어의 지역성에 관한 논의가 단순히 지역적 경계의 구획으로 주어진 언어 자료의 실체에 관해 논급하는 진술로만 그쳐서는 곤란하다. 표준어가 지정되고 규범적 실체로 자리잡는 제도적 기제를 다각적으로 탐색하는 한편, 한 지역의 언어가 주변적인 방언의 지위로 전락하는 부정적 계기는 물론 다양한 담화 수행의 장에서 방언이 활성화되는 긍정적 계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적 거점을 마련할 여지가 크다. 이를 위해 다채로운 담화의 양상을 순도 높게 응축하여 전하기에 좋은 서사물을 논의 대상으로 삼음직하다. 특히 정제된 '글'을 통해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언어 수행의 양상을 구현하기에 최적화된 '소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에 쓰이는 언어는 일상 언어에 비해 정제된 양태이다. 따라서 문학은 언어 수행 면에서 최상위에 해당하는 품과 격을 보인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소설이라면 거기 구사된 언어 또한 고도로 다듬어진 언어 수행 양상을 여실히 보인다. 이를테면 평소 표준어를 모범적으로 잘 구사하는 이라도 함부로 흉내내어 소설을 쓰기는 어려운 법이다. 소설은 수준 높은 표준어를 기조로 쓰여진 언어 텍스트이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비표준적인 언어 양태조차도 고단위로 정제되어 쓰이는 담화 상황이 곧잘 빚어진다. 문학어가 여러 단계에 걸쳐 정제된 언어 양태이면서도 규범에 종속되지 않고 창의적인 언어 수행의 결실을 양산하는 거꾸집 역할을 하는 현상이 여실히 있다. 문학 텍스트에 쓰인 언어 수행의 결과가 종종 규준적 사례로 쓰이는 데 비추어 보아도, 표준에서 벗어난 언어 표현이 소설에 채용된다는 점은 문학어의 이중적인 지위를 엿보게 한다. 일상의 이야기를 일상어로 전하기에 좋은 산문 서사인 소설의 경우 특히 그러한 이중적 면모가 짙다. 고도로 정제된 언어 양태를 구현하면서도, 비속어는 물

론 규범에 위배된 표현조차도 산문에 수용할 수 있는 소설의 저변에서 표준어에 관련된 중심의 담론이 해체될 거점이 마련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장르종인 소설(novel)은 삶의 전역에 걸친 문체적 상황은 물론 삶의 소소한 일상에 깃든 정서와 의식의 면면을 들추어 이야기하는 분방한 산문 양식이다. 그만큼 양태 다양한 담화 상황의 구현이 소설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 구현의 방향이 반드시 실상을 고스란히 재현하여 실감을 자아내는 데로만 향하지는 않는다. 자유로운 서술의 방향이 지향점조차 없이 제멋대로이거나 아무런 구애됨 없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일상의 담화 상황이 규범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소설은 조작적 담화 상황을 연출한 언어 텍스트이므로 규범의 제약에 구애됨 없을 수 없다. 의도적으로 문법에 위배된 문장을 쓰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담화 상황을 제시하여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적 열망을 극화하려는 사조나, 세태를 조롱하거나 장난기 어린 유희를 위해 일부러 언어적 규범을 어기어 쓴 소설의 사례가 없지 않으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을 여는 소설 대부분은 언어적 규범에 밀착된 서술을 통해 담화를 구현한다. 다만 관건은 작가마다 혹은 소설마다 특유의 서술 전략을 작동하여 담화의 양상을 다채롭게 변용함으로써 미적 효과를 조율하는 데 있다. 소설의 예술적 완성도에 기여하는 미적 효과를 자아내기 위해서 규범적 언어를 다각으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문체(style)’가 구성된다.

문체는 소설에 쓰인 언어의 미적 자질을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인데, 일반적인 언어 규범을 변형하는 기제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서 표준의 범주에서 이탈한 양태이다. 말하자면 문체는 소설가 개인의 방언(idiolect)이나 작가 사회의 방언(sociolect)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규범적인 표준어를 고도로 정제하여 채용하면서도 다채로운 담화 상황을 구성하는 데 지역어를 채용하는 소설 문체의 역동적 국면은 원체 포용력 큰 장르종인 소설의 자질을 드높이기도 한다. 이른바 문학어(literary language)와 일상어(ordinary language) 사이의 간극을 조율함으로써 문학 향유층의 저변을 넓힌다는 근대문학의 중요한 테제를 실현하는 데 소설이 크게 기여한 것이다. 표준어 혹은 중앙어의 정수를

서술하는 동시에, 지역어 혹은 방언의 풍성한 보고(寶庫) 역할을 하는 소설의 이중성과 포용성이 문학어와 지역어의 역학이 부르는 문체 효과에 대한 관심을 부르는 동인인 것이다.

요컨대 대화적이고 다성적인 장르종인 소설의 자질에서 중요한 거점을 이루는 문체<sup>5)</sup>의 구성과 효과의 미적 기제를 해석하는 데, 표준어와 방언, 혹은 중앙어와 지역어의 역동적인 운용 양상이 관건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지역의 구분이 자명하여서 언어의 지역성이 드러나거나 지역어가 자연발생적인 실체로 주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가치가 부각되어 지역의 가치가 폄훼되거나 주변에 내몰리면서 지역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부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방언 혹은 지역어는 단순히 토속성이나 지방색을 드러내는 표층에 국한된 논점에 그치지 않으며, 사회언어학적 차원에서 거론될 지역적·계층적 언어의 층위에 작용하는 역학에 관한 구심적 논점이어서 주목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갈등과 문제 상황을 극화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골자인 소설에서 언어를 구현하는 입장은 그러한 맥락에 맞닿는다. 소설에서 지역어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는 이유는, 담화 상황의 다채로운 국면을 극화한다는 기술적인 측면과도 관련되지만, 여러 계급·계층과 복잡다기한 영역에 걸친 다면적인 가치가 충돌하기도 하고 어우러지기도 하는 대화적이고 다성적인 이야기 장을 개시(開示)하려는 소설의 포용력 있는 자질이 고양되는 측면에 더 관련된다.

5)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68~69쪽, 110쪽 참조. M. M. Bakhtin, 'The Problem of Speech Genres', Caryl Emerson & Michael Holquist (ed.), Vern W. McGee (trans.), *Speech Genres & Other Late Essays*, Texas UP., 1986, pp.99~100 참조. M. M. Bakhtin, Michael Holquist (ed.), Caryl Emerson & Michael Holquist (trans.), *The Dialogic Imagination*, Texas UP., 1981, pp.331~332 참조.

### 3. 담화의 사회언어학적 역학과 지역어의 문체 영향

언어는 지역적 자질을 드러내는 직시적 표지 가운데 매우 뚜렷한 하나이다. 보통 특정 지역 방언의 구사 여부를 통해 한 사람의 지연 관계를 가늠하게 마련이다. 혹 표준어를 구사하는 가운데도 특정 지역 방언의 흔적이 드러날 경우 그 흔적을 단서로 한 사람의 지역적 배경을 예단하기 십상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지역 간의 지리적 편차를 가능하는 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양의 정도나 문화적 환경, 또는 사회적 관계망 등 삶의 전역에 걸쳐 작용하는 위계적 층위를 가능하는 데에 관여되면서, 더욱 심대한 사회언어학적 현상으로 부상한다.<sup>6)</sup>

기실 언어 규범의 전제인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은 완전히 동질적인 언어공동체, 이상적인 화자-청자의 관계를 전제한 개념이다.<sup>7)</sup> 이는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다면적인 언어 현상을 추상하는 동시에 언어 수행을 통해 양산되는 변이형을 올곧은 형식의 언어 형태로 환원한다.<sup>8)</sup> 만약 언어 현상을 이런 양상에만 환원할 경우, 언어를 대기에서 추려내어 진공 상태에 가두어 담화 수행의 역동적 생기를 빼놓는 결과가 파생될 공산이 크다.<sup>9)</sup> 특히 문학적으로 변용된 언어의 창의적 수행 양태를 송두리째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유희의 결과로만 치부할 의견(doxa)이 우러난다. 그러나 언어 현상이 벌어지는 의사소통의 대기 속에서는 다양한 가치가 언술되는 다채로운 담화의 상황이 빚어진다. 소설은 그러한 담화 상황의 양상을 수용하여 재편하고 변용함으로써 문체 효과를 드러내는 기저로 활용한다. 환언하자면, 소설의

6) 방언의 문체 자질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시론의 기본 구도는 「호남 방언과 서사 문체」(『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8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에서 논급한 바 있다. 그 논의에서 나아가 지역어로 논의의 층위와 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서사 담론의 문체적 자질에 관여되는 지역어의 역학적 양태를 입론의 거점으로 재편하여 논의의 차원을 확대할 이론적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7) 이익섭, 『사회언어학』, 민음사, 1994, 26쪽.

8) 위의 책, 같은 쪽 참조.

9) 위의 책, 같은 쪽 참조.



문체는 사회언어학적 조건을 전제로 다채롭게 구현되는 담화의 역동적인 국면에 관여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소설에 쓰이는 언어의 양상을 살펴보면, 지역 방언 뿐만 아니라, 사회 방언, 계층 방언의 층위에 걸친 다양한 담화의 국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규범적 언어를 고도로 정제하여 쓰는 것이 기초를 이루어 일상어와 변별되는 문학어의 자질을 심장하게 드러냄으로써, 근대 이후 유력한 장르종으로서 소설의 위기가 전제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서정이나 극 장르와 다른 서사 장르의 유연성은 물론 일상적 담화의 대중성이 소설의 변별 자질을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전의 서사 종들이 특정 향유층 별로 분별된 양식과 매체로써 유통되던 것과 달리 일상어를 통해 다층의 대중이 향유하기에 수월한 산문 양식으로 소설이 유통된 정황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적이다. 이처럼 문학어와 일상어의 조율은 물론 표준어와 지역어의 조율을 통해 효과적인 문체를 구현하려는 전략이 소설 언어의 여러 국면을 산출한다.

소설은 언어의 지역성(locality)에 관해 긍정적인 가치를 적극 고양하는 텍스트를 제공한다. 표준어와 방언은 물론 비속어나 은어처럼 한정된 언중이나 제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통용되기에 공인되지 않은 언어조차도 소설이라는 담화 매체를 통해 공식적 담화 층위에서 제시되는 전도 현상도 빚어진다. 물론 이러한 지역어(혹은 지역성을 띠는 언어)들이 실제 공식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설이라는 특정 매체 내에서, 그리고 그 서사 내적 구성의 원리를 전제로 할 때, 특히 문체적 자질을 드러내는 표지로 작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식적 담화의 층위에 투사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어의 가치나 의미, 그 자질 따위를 적극적으로 논급하고자 할 때 소설을 대상으로 서사 문체적 영향 기제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를 통해 지역어의 운용에 관한 최적화된 논점을 추출하는 길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 경계로 구획된 지역 간의 편차가 야기한 표준어와 방언의 위계만 해도 그러하지만, 삶의 질적 차원에 관여된 문화적 기반의 편차에서 비롯된 사회방언 간의 위계는 특히 소설의 다채로운 담화 양상에 채용될 여지가 크다. 지역적 요소들 간에 잠재한 정치·경제적 격차나 문화적 소양의 차이에

따라 파생되는 지역어 사이의 계층화 국면이 주목거리로 부상하는 것이다. 이로써 서사 문체의 역동적 양상에 기여할 계기가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바야흐로 ‘지역’이라는 표지에 덧붙은 ‘주변’이라는 꼬리표를 통해 지역어의 범주와 자질이 지정된다.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가치가 폄훼되거나 의미 없는 잉여적 현상으로 치부되는 것들이 ‘지역’에 수렴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중심 대 주변’의 구도를 자명한 현상으로 전제하고서 종내는 중심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대립 구도를 무색하게 하는 중심주의의 국면을 해체하는 담론적 전략의 거점항을 상징할 수 있는 사유의 반전이다. 지역이나 주변으로 내몰린 향들이 일정한 범주를 구성하여 세를 형성할 수 있는 소지가 빚어지는 것이다.

지역어가 일정한 세를 형성하는 데에는 주변적 상황이나 지역적 처지에서 부각되는 성원들의 정서적 친밀도가 관건이다. 같은 지역 출신이거나 동일 지역에 소속된 이들 간에 느끼는 웬지 모를 친밀감은 물론이거니와, 출신 지역은 다르더라도 유사한 처지(특히 주변에 내몰린 처지)에서 차별 받고 있다는 감정, 또는 동등한 층에 속해서 함께 소외되어 있다는 의식 등이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들이다. 주변에서 쓰이는 지역적·계층적 방언이 이렇듯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자로 작동한다는 점은 문학적 담화를 통해 정서적 소통의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과 절묘한 함수적 대응을 이룬다. 지역어는 서사 문체의 다채롭고 풍성한 향연을 통해 생명력을 얻는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소설의 문체는 단선적인 표현의 층위에만 걸친 것이 아니라, 독자의 반응에 끼치는 영향 기제와 효과를 산출하는 공정에 관여된 수용의 층위에 아울러 걸쳐 있다. 따라서 지역어를 씌으로써 산출되는 문체 자질에 관해서는 단순히 지역어가 얼마나 어떤 양상으로 쓰였는지를 산술하거나 직시적 표지를 추려 기술하는 것만으로 논의를 다 할 수 없다. 소설의 담화 상황을 짓는 데 지역어를 채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문체 효과란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향(affection)의 국면과 맞물린다. 지역어가 노정된 소설의 언어 구성 양상은 규범적 언어인 표준어가 고도로 정제된 양태로 쓰였을

것으로 기대하는 독자의 이해 지평에 모종의 파장을 일으키는 동인이다. 기대 지평에 일으켜지는 파장이 작든 크든 간에 소설의 문체는 독자의 정서나 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심적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한 역동성의 질량이 소설 문체의 복잡 다기한 국면을 가늠케 하는 단서이기도 하다.

이 맥락에서 양층언어(diglossia) 현상의 역학이 소설 문체의 역동성에 관여된 논의의 수면에 떠오른다. 지역어를 습득하여 구사하는 성원이 후에 교육 과정을 통해 표준어를 습득하고 삶의 권역을 중앙에 근접하게 유지하노라면, 지역어는 언어 수행 면에서도 주변에 내몰리는 형국이 연출된다. 그렇지만 모어(母語)에 가까운 지역어의 자장(磁場)은 표준어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는 언어 수행에 곧잘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음성 층위에서부터 어휘, 통사, 의미의 층위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담화 과정에 간여하는 문화적 습성에 이르기까지 지역어의 잔향이 드러나기 십상인 것이다. 혹 담화 구성원이 지역어 구사자들이거나 담화 환경이 지역어에 걸맞은 상황이라면 아예 표준어가 뒷전에 밀리는 양상이 펼쳐지기도 한다. 가령, 표준어를 잘 쓰던 이들이 동향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지역어를 경쟁적으로까지 구사하는 현상, 특정 지역을 방문한 이들이 애써 그 지역어를 빌려 쓰거나 흉내내면서 그 지역 성원들과 어우러져 일체감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현상 등이 곧잘 펼쳐진다.

이처럼 양층의 언어를 번갈아 구사하는 정황에서 담화의 역학 관계가 잘 드러나는데, 그 양상을 구현하기 위해 소설의 문체는 역동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따라서 서사 문체는 단면적인 표현의 양상에만이 아니라, 소통의 맥락과 환경에 따라 조율되는, 가능한 담화 상황의 제 국면에 걸쳐 작용하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구성되는 정치·경제적 역학과 심리적 기제 등에 연관되어 그 자질이 구성된다. 이 경우, 중앙어에 대한 지역어의 콤플렉스가 투사된 언어 구사의 역학 관계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또한 외국어 구사에 얽힌 지적 허영심 또는 외국어 구사자에 대한 콤플렉스도 곧잘 드러나는 데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한자어를 많이 구사함으로써 유식함이나 차별화된 고등 교육을 받았음을 과시하거나, 영어를 섞어 쓰거나 유려한 영어를 구사함으로써

써 계층·계급적 위상을 뽐내는 상황을 대면하게 된다. 이는 한 가지 언어를 구사하면서 단계상의 차이, 즉 품격 높은 언어 형태와 다소 품격 낮은 언어 형태 간의 차이나는 유형들을 바꾸어 가며 말하는 상황<sup>10)</sup>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사회언어학적 현상은 상황에 얽히고설킨 감정의 복합적인 국면이 담화 양상을 조종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정황에 연결된다. 이는 일반 언어와 전문 언어 간의 대립<sup>11)</sup>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이러한 문제 상황은 일상어에 대극인 문학어의 문체에 끼치는 사회언어학적 조건의 영향에 관여된다.

기실 문학어와 일상어의 경계와 변별 지점에 대한 판단이 그리 녹록치는 않다. 특히 소설의 경우 일상어으로써 쓴 산문이 기초인 까닭에 특별히 소설어의 자질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진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문학어가 일상의 표준어에 비해 정제된 언어 양태로서 중심의 우월한 지위를 점한다고 할지, 아니면 규범에서 벗어난 표현이 용인되는 담화 양태임을 고려하여 또 한 차원의 지역어에 상응한다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수월찮다. 물론 어느 한 편에 귀결시키는 일이 온당하거나 의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필요한 논란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 다만, 일상의 사상(事象)을 재현하는 것은 물론 가상의 허구를 지어 인간사의 전역을 다각적으로 구현하는 언어적 결구(結構)가 언어의 중심과 주변, 혹은 고급과 저급의 경계를 넘나들어 다채롭게 지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문체 효과를 낳는 요건들에 주목하여 소설에 구현된 담화 상황을 분석하여 일상적 담화 상황과 차이를 낳는 요소와 차원을 미시적 국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비유적 표현의 층위적 이중성 같은 문제가 흥미롭다. 비유는 일상어와 변별되는 문학 언어의 대표적 표지로 꼽히는데, 규범적이고 공식적인 언어적 표현이 아니며 언어 수행의 중심을 이룰 수 없다. 그러면서도 고도의 언어 조작 역량이 발휘된 언어 활동의 소산이며 그 자체로서 짐짓 고상하고 품격 높은 언어 표현의 국면을 이루는

10) 유진 나이다, 송태효 역, 『언어 간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고려대출판부, 2002, 48쪽.

11) 위의 책, 같은 쪽.

이중성이 드러난다. 비유적 표현 가운데 비어나 속어, 또는 방언을 활용하여 심상(心象)의 전복을 도모하는 사례에서 이중성이 더해지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소설에 구현되거나 소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양층언어 현상이 소설 문체의 특수한 국면을 구축하는 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양층언어가 개입된 소통 회로에서 작동하는 정서적 영향을 통해 획득되는 문체의 감각적 국면에 대한 논의가 주효한 국면으로 부각된다. 특히 양층언어 간 코드-전환(code-switching)의 상황에 개재되는 심리적 기제는 지역어의 정서적 영향의 계기를 확인하는 데서 주요 관건인데, 이를 소설의 문체 요건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상이한 언어의 사용은 언어 형태에 따라 상이한 상대적인 문화 상황을 암시한다<sup>12)</sup>는 점을 염두에 두거나, 한 집단의 정치·경제적 권위가 심한 변화를 겪게 되면 그에 따라 거의 언제나 언어의 위상에도 변화가 있게 된다<sup>13)</sup>는 점을 고려하고 보면, 이러한 역학적 정황을 소설의 담화 상황에 잘 적용하여 문체 효과를 드높이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은 인물 간의 갈등을 극화함으로써 정황의 실재(reality)를 창출하는 데 성패의 중요한 거점이 있는 까닭이다.

지역어는 공동체의 감성을 조율하거나 감성을 매개로 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더하게 하는 동인이라는 점도 주목거리다. 특정 지역 출신의 집단이 모여 쓰는 방언은 물론, 특정 언중에서 용인되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용어, 특히 전문가 집단의 용어는 물론 가령 마피아 집안끼리 쓰는 용어처럼 특정 집단에 통용되게끔 전문화하는 경향<sup>14)</sup>은 특권의식을 통해 형성되는 집단의 결속감이나 소속감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지역이 다르거나 특정 집단에 끼이지 못한 이들의 '반감'이 일으켜지는 계기이기도 하다. 또한 담화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당해 담화에서 주도적으로 쓰이는 언어로 전환하여 대응하려는 경우에 비추어 보면, 양층언어의 코드-전환에 결부된 지역어의 용례는 소설과 같이 갈등을 주요 동인으로 하는 문

12) 위의 책, 49쪽.

13) 위의 책, 같은 쪽.

14) 위의 책, 같은 쪽.

학적 담화 상황을 구성하는 데 쓰일 훌륭한 재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에서 구성되는 담화 상황은 다양한 인물 군에 걸맞은 언어적 감성을 구현하는 데 걸맞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층언어의 다각적인 양상을 통해 그러한 문체적 효과를 적중시키는 길이 채택되는 것이다. 소설에 근간으로 채용되는 언어가 고도로 정제된 형태의 표준어임을 생각한다면, 대체로운 지역어가 구현된다는 점 자체가 양층언어에 관여된 사회언어학적 조건을 전제로 하는 소설의 화행상황을 대변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도 소설의 문체 자질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 담화의 디테일에 배인 화행 상황을 섬세하게 분석하여 그에 작용하는 사회언어학적 조건을 추론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들출 수 있다.

지역어에 관여된 언어 수행의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지역어의 역동적 개입 양상을 활용한 서사 문체의 국면은 규범에서 이탈한 언어 수행에 관여됨으로써, 규범과 제도에 연관된 이성적 활동보다는 감성이나 감각에 연관된 화행의 국면에 수렴되기 십상이다. 담화 상황의 수사적 효과가 극대화된 양상으로 펼쳐지기에 담화 성원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유효한 정황에서 서사 문체의 역동성이 확보될 수 있다. 언어 자체의 공교(工巧)한 표현 양상을 통해 구현되는 문체 자질보다는, 담화에 개입된 사회언어학적 조건을 통해 작동되는 언어적 감성을 빚는 기제의 차원에서 유효한 표지들을 추출하고 이들을 구심으로 산출되는 문체 효과의 국면들을 읽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화행 상황에 따라 지역어 구사의 양상을 달리함으로써 감성의 수위를 조율할 수 있는 언어적 전략이 구성될 수 있다는 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에서 드러나는 지역어의 구현 양상은 실감을 재현하는 일방향에만 맞추어지지 않고 문학어와 일상어 사이의 역학을 조율하여 문체 효과를 드러내고자 하는 전략이 이관된다. 일반적으로 지역 특유의 토속적 분위기나 공동체적 정서를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지역어를 채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틀린 생각이 아니다. 그렇지만 지역어의 문체 효과가 이러한 데만 쏠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에서 벌어지는 담화 상황을 구현할 때에 온통 지역어만으로 서술하는 경우는 의외로 드물다. 소설을 기술하는 기본 언어가 표준어이며 독자들 또한 표준어 화자이거나 표준어 교육을 받은 화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까닭에 소설은 표준어를 기저로 하여 쓰여지는 것이 보통이며, 지역어를 통해 드러내기 용이한 특수한 정서나 공동체 의식 등을 최적화된 소통 회로에 부치기 위해 지역어 사용의 빈도와 양상을 조정하고 지역적 감각이나 감성을 조율할 여지를 두는 것이다.

이 경우 규범적 중앙어에 해당하는 표준어에 대해 지역어는 일탈적 방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되며, 그러한 일탈적인 언어의 차원에서 파생되는 감성적 자질들이 서사 문체의 정향을 예시(豫示)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지역어의 양상이 소설에 기술된 지역어의 양상과 정합하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지역어 운용의 묘미와 감성의 조율 기제가 문체의 역동성을 드높일 수 있는 여지를 얼마나 어떻게 조성하는지 여하를 추론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모인다. 음성·음운 층위에서 직시적으로 감성 요소가 표현되는 것은 물론 형태소나 문장 층위에서 특수한 변형을 통해 지역어 특유의 감성 요소가 표현되는 데 주목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정치·경제적 이해(利害)에 따라 달라지는 화행 상황의 역동적 국면을 드러내는 데 지역어의 채용이 유력한 효과를 낸다는 점을 예증할 필요가 있다. 표준어에 비해 방언에서 감각·정서를 풍성하게 전해진다는 점을 예증할 표지들을 발견하여 풍부하게 예시하는 것 또한 관건이다.

이런 면에서, 일상어의 채용이 비교적 수월하며 다채로운 담화의 국면을 재현하고 다양한 층과 부류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서사 양식인 소설에서 지역어의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구현 양상에 대응된 문체 효과의 구심적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문체에 대한 논의에서 나아가, 역동적인 맥락을 통해 구성되고 효과가 발휘되는 문학적 담론의 효력과 영향에 주목하여 문체 논점의 맥을 옮긴다면, 표준적이고 중심적인 중앙어 가운데서도 고급인 문학어의 품위나 위용을 드러내는 언어적 표지만을 갈무리할 수만은 없다. 품과 격을 덜어내는 담론의 화용 상황에서 펼쳐지는 역동적 변이의

국면을 읽는 해안이 서사 문체의 다양한 양과 태를 밝히는 장에서 요구된다. 지역어를 통해 구현되는 언어의 감성 자질을 이로써 추론하여 언어 운용의 다각적인 국면을 온전히 해석하여 기술할 수 있는 여지를 더함직하다.

#### 4. 지역어의 감성과 서사 문체적 자질

매재의 근간을 이루는 표준어를 고도로 다듬은 문학어에 지역어가 채용되고 있다는 아이러니는 양층언어 현상의 사회언어학적 조건을 전제로 문체 자질을 논급하는 길이 온당함을 시사한다. 화행 상황은 물론 문화적 약호(code)와 인지 도식(cognitive scheme)에 따라, 그리고 정치·경제적 조건이나 역학 관계에 따라 다면적이고 다층적으로 운용되는 지역어의 양상은 특히 시적 언어의 변용 전략으로보다는 서사 문체의 변용 전략으로 활용하기 수월하다. 시에서 토속적 감각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거나 이색적인 이미지와 형상을 짓는 선에서 지역어를 채용하여 변용하는 데 비해, 일상어를 그대로 쓰면서도 문학적 효력을 창출해야 하는 소설에서 지역어는 좀더 역동적이고 복잡한 문체적 변용 회로에 편입되는 편이다.

따라서 소설에서 드러나는 지역어 변용의 표층적인 양상을 기술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기획된 지역어의 감성 발현 기제와 문체 효과의 전략적 심층을 해석하여 기술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이를테면, 산업화 외중에 형성된 ‘시골 대 도시’의 대립적 표상에 ‘방언 대 표준어’ 또는 ‘지역어 대 중앙어’의 역학 구도가 사상(寫象)된 양태를 추론하여 기술할 수 있다. 방언은 물론 비속어를 씬으로써 빚어지는 토속적 정서의 표출이나 희극적 상황의 재현과 같은 효과에 대해, 격식에 맞고 점잖은 표준어를 씬으로써 빚어지는 도회적 정서의 표출이나 비극적 상황의 재현과 같은 효과가 대를 이루는 양상을 해석할 수 있다. 표준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표현을 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반면, 지역어가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에 적합하며 논리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이나 사리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표현하는 데 주로 쓰



인다고 인정되는 정황도 이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다. 비유적 표현 또한 표준에서 벗어난 언어 수행의 소산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자면, 지역어가 서사 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 범위가 사뭇 넓고 그 의미는 심장하다. 몇몇 사례에 비추어 그 의미망을 정리하여 지역어의 서사 문체적 자질을 타진해 보자.

다음은 오영수의 「화산댁이」<sup>15)</sup>의 한 대목이다.

‘지만 하더라도 일본서 근 십 년 만에 나왔으면 그만 지 형 말대로 농사나 짓고 수더분한 색시나 골라 장가들었으면 등 따시고 배 부릴 꺼로 머 공장을 하느니 하고 날뛰 땡기더니.’

화산댁이는 어서 날이 새면 싶었다. 잠도 안 오거니와 아까부터 뒤가 마려운 것을 참아 왔기 때문이다. (50)

작은 따옴표로 묶인 부분은 방언 화자인 인물 ‘화산댁이’의 내적 독백에 해당하는 언술을 직접 인용하여 서술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서술자가 인물의 의식과 감정의 정황을 대신 서술한 상황이다. 내·외적 초점화(focalization)의 양상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각각 방언과 표준어의 발화 정황이 변별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인물의 발화를 그대로 옮긴 언술에 비해 서술자 층위의 언술이 더 정제되고 논리적인 어투를 띠기도 하였다. 인물의 지각을 초점화하였으나 서술자의 언술로 서술될 경우에도 이러한 양상은 이어진다.

그러나 날은 언제 썰지 모르겠고 뒤는 자꾸 급해 왔다. 화산댁이는 참다못해 조심조심 더듬어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다시 더듬어 밖으로 나갔다. 비는 그쳤고 갈라진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다. 뒷간이 있음직한 곳을 이리저리 찾았으나 없었다. 짐을 두 바퀴나 돌았으나 뒷간은 역시 없었다.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화산댁이는 뒷간이 없는 집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일이 급해서 그만 어수룩한 담 밑에다 대고 뒤를 보았다. (50; 인용자 밑줄)

15) 오영수·오상원, 『갯마을·유예 외』, 두산동아, 1995. 이하 인용문에는 끝에 해당 쪽수만 밝힘.

밑줄 친 대목들은 대체로 인물의 지각을 초점화한 서술이다. 그렇지만 서술자의 언술에 이관되어 서술된 까닭에 인물의 발화 양상을 고스란히 반영하지 않았다. 사건의 정황은 물론 인물의 내면을 서술자가 투시(Außenperspektive)하는 서술상황(Erzählsituationen)<sup>16)</sup>이 구성된 까닭에 인물의 의식과 감정이라도 정연한 언어 표현을 통해 서술된 것이다.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 없다.’는 식의 논평적 언술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이러한 서술상황에 균열을 일으키며 서사적 불확정성(Unbestimmtheit)의 계기가 된다.

한결 개분했다. 문살만 훤히면 나와서 뒤 본 자리를 챙기리라 맘먹고 다시 들어왔다. (50)

‘개분하다’는 ‘개운하다’의 경상 방언이다. 정황상 인물의 지각을 초점화하여 서술자 층위에서 서술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인물의 발화가 그대로 드러난 형국이라 초점화의 양상이나 서술상황이 전과 다르다.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인물의 지각을 옮기는 언술이 다시금 서술자 층위로 이관되어 이전과 같은 서술상황이 이어진다. 짧은 문장이라 대수롭지 않은 서술상의 실책 정도로 보아 넘길 만한 대목이겠으나, 서사 문체의 역동적 국면에 부쳐질 언표적 단서가 제시된 것만은 분명하기에 주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표준어와 지역어의 교체 양상을 통해 드러나는 문체적 조율의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물의 내밀한 감성 국면에 가장 밀착된 언술일 경우 초점화된 인물의 발화가 서술의 수면에 직접 반사되어 비취질 때 드러날 문체 효과가 의미심장할 수 있다는 데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인물 발화의 층위와 서술자의 서술 층위 사이의 경계에 대응되는 표준어와 지역어의 경계는 서술상황의 불확정적 국면으로 빚어지는 문체 역

16) ‘서술상황’과 관련된 ‘투시’, ‘불확정성’ 등의 술어에 대해서는 슈탄첼(F. K. Stanzel)의 『서사의 이론(Theorie des Erzählens)』의 논지를 따르는데, 이를 정리하여 기술한 다음 논지를 참조할 수 있음. 장일구, 『서사 공간과 소설의 역학』(전남대출판부, 2009), 243~252쪽 참조.

학에 이관된 서사 담화의 문제 상황과 결부된다. 단순히 서사의 실감을 야기하는 효과에만 지역어의 문체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줄곧 유의해야 한다. 인물 간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기술한 담화 상황에서도 지역어 구현의 양태는 조율 회로에 회부되게 마련이다. 「화산댁이」의 이어지는 대목을 더 보자.

“늬은이 어딴소?”

“예…… 두메 사는 촌 늬은입더!”

“이 집하고 어째 되오?”

화산댁이는 목구멍까지 나온 말을 되삼켰다.

“아들이오 딸이오?”

“아무것도 앙입더, 그저 아는 사람인데 불일이 있어 왔다가…….”

남정네는 갑자기 말이 거칠어졌다.

“그래, 촌 늬은이는 똥이 더러운 줄도 몰라?”

“예, 어찌겠능고, 늬은것이 망녕이 들어서…….”

“중소, 가소!” (50)

대화를 직접 인용한 상황에 걸맞게 방언 화자인 인물의 발화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 가운데 방언 화자들 간에도 연령의 차이에 따라 또는 거주지의 도촌(都村) 여하에 따라 방언 구사 양상이 다르고 상대에 대한 담화 태도에서 위계가 형성되는 정황을 엿볼 수 있다. 실제 담화 상황에 비해 여러 정황적 디테일이 생략되거나 축약된 담화의 결과가 서술에 부쳐진 것으로 보인다. 인물의 조건에 비추어 방언 구사의 양태를 조율하여 사건의 상황을 극화한 장면이 제시된 것이다. 이 장면은 따져보면 비극적 상황이지만 이야기를 통해 희극적 상황이 연출된 것인데, 방언의 문체적 기제가 이에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감정을 직서하고 대상을 직설하여 점잖지 못한 속어처럼 들리는 표현도 그 효과에 기여한다.

이렇듯 정태적이기보다 역동적인 효과를 자아내는 대화의 담화 자질이 서술자 층위의 언술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이어져 흥미롭다.

화산댁이는 돌아 나왔다. 그새 행여 아들 내외가 깻을까 싶어 조마조마 문

간을 들어오면서 무심코 들여다본 쓰레기통에 도토리떡이 보자기째 내버려져 있었다.

“아이구짜고, 시상에 죄받을 짓도 했다!”

화산택이는 얼큰 들어 내 치마 밑에다 감췄다. 쓰레기통에는 짬세기도 그대로 얹어져 있었다. 어느새 화산택이 눈앞에는 두메 손자들의 얼굴이 자꾸만 얼쩨거렸다. 도토리떡을 홍홍거리고 영겨들다 췌박히고 떼밀려 찌그러지고 우는 얼굴들이었다.

“꼴난 것 무슨 차반이나처럼…….”

화산택이 눈시울에는 어느새 눈물이 핑 돌았다. (51~52 ; 인용자 밑줄)

밑줄 친 표현들은 방언은 아니지만 얼핏 규범적인 표현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췌박히다’ 정도라면 모를까 비속어로 분류될 어휘들은 아니다. 그런데도 서술자 층위의 서술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어휘들이 정태적인 장면에서 관여되기보다 역동적인 사태에 관여되기 때문일 것이다. 표준어로 분류되더라도 의미 맥락이나 용례를 통해 발산되는 감성 국면의 양태에 따라 품과 격이 달리 평가되고 그에 따라 표준어 내에서의 위계가 조성될 수 있는 여지를 이 맥락에서 추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표준어 권역 내에서도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나뉘고 표준어이지만 지역어 영역에 이관되는 일군의 범주가 구성될 개연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개연성은 지역어에 연루된 감성 층위의 문체 자질을 추론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감성의 발현 양태를 조율하기 위해 인물 층위의 발화는 물론 서술자 층위의 서술에서 지역어를 채용함으로써 구성되는 양층언어의 문체적 기제가 저러한 거점에서 재삼 관심거리로 부각된다.

대체로 소설의 담화 양태가 표준어에서 지역어로 전환되는 국면은 희극적 감성을 부르는 서사적 정황을 담화의 장에 투사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가령, 송기숙의 「재수 없는 금의환향」<sup>17)</sup>은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사건 정황의 아이러니 효과를 주축으로 희극적 상황을 극화한 소설이다. 그러한 아이러니 효과가 대개 담화 상황의 병렬을 통해 달성되는데, 예컨대 기부금을 얻

17) 송기숙, 『자랏골의 비가 외』, 두산동아, 1995. 이하 인용문에는 끝에 해당 쪽수만 밝힘.

어내기 위해 친구들이 ‘복만이’를 다텔하며 벌이는 사건 속에 펼쳐지는 담화에서, 지역어와 표준어, 비속어와 고급어 사이의 아이러니 효과가 빛어지고 언어유희적 비유가 더해져 희극적 상황이 극화되는 데 주목할 만하다.

사업에 성공하여 ‘금의환향’한 ‘복만이’가 거들먹거리면서 고향 친구들과 억지로 격조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황이 이야기되는데, 친구들과 대화를 벌일 때 정색하고서 서울말을 쓰며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듯한 언행이 그 징표이다.

뒷자리에서 사내 하나가 내렸다. 색안경을 벗어 들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선구에게 다가섰다.

“야 오랜만이구나.”

“아니, 너 복만이 아니냐?”...(중략)...

“사업이 잘된다는 소식을 간혹 듣긴 했다마는…….”...(중략)...

“하하. 뭐 사업이랄 게 있니. 넌 지금도 그 비료공장에?”

“그대로야.”

“고생 많겠군.”...(중략)...

“허, 이것 참 몇 년 만이냐?”

“정말 오랜만이군. 너도 지금 추석 쇠러 오는 것 같은데 같이 타자.”

“아니, 난 애들이 있어, 저녁에 만나서 얘기하자.” (392~393)

이런 식으로 점잖은 태도에다 표준어를 구사하는 ‘복만이’의 면면은 고향 친구들을 하나 둘 만나가는 과정에서 더해진다. 그렇지만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가운데도 모어인 방언의 흔적을 온전히 지우지 못한 징후들이 드러나 희극적 아이러니가 빛어진다. 요컨대 양층언어 현상의 정황이 위에 예시한 담화 양상과 대비를 이루며 미묘한 감성의 틈을 시사하여 흥미를 더한다. 다음과 같이 ‘복만이’의 담화에 반영된 언어 코드 전환의 표지들이 수다하게 출현하는 것이다.

“그래도 몰자 귀한 나라에서 고장이 나면 애 숙여서 고물고물 고쳐 써사제 고장이 나는 족족 내던지기로 하면 누가 그 많은 자동차를 맨들어 댈 거여.” (407)

“산 지가 얼마 안 되는 디 여편네가 무슨 회의다 멋이다 해서 하도 나대고 땡기는 통에 차가 견더나들 못하는구만.” (407)

“독한 술인께 거 쪼끔씩 따라. 췌주 세 배는 독한 것이라 지대로 마실라면 물을 타서 마시는 것이여. 그걸 막걸리 마시듯 했다가는 클나!” (413)

“이런 재미 참말로 생사람 죽일 참이여?” (413)

이처럼 ‘복만이’는 고향 친구들과 모여 펼쳐진 담화 상황에서 처음 격의를 두어 표준어를 쓰다가 점차 방언 화자로 이행하며 어우러져 간다. 특히 친구들이 ‘복만이’를 매달고 몽둥이 찜질을 하며 기부금 액수를 흥정하는 과정에서 ‘복만이’의 말은 온통 방언과 비속어로 전환된다. 그러는 사이에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친구 사이의 관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야기가 대단원된다. 갈등의 해소와 양층언어 코드-전환의 국면이 맞물린 셈이다.

“아이고 머리아 아이고.”

복만이는 그대로 방바닥에 네 활개를 펴고 늘어져 엄살을 부렸다.

“하늘이 한참 빙빙 돌 거여, 하하.”

복만이는 한참 만에 땀투성이 얼굴을 문지르며 일어났다. 얼굴을 찡그리며 묶였던 발목을 주물렀다.

“자 양주 한잔 하면 풀릴 거네, 그런께 진직 낼 일이지 기어코 호강을 한번 하고 싶어서 버티니까 그 꼴이지, 하하.”

모두 웃었다.

복만이는 웃음 반 울음 반의 씩씩한 표정으로 선구의 잔을 받아 상에 놓으며 다시 발목을 문질렀다.

“아 이 사람아. 그런께 간혹 가다 적선도 하고 시주도 하면서 살어. 그래야 자네 이름대로 ‘복많이’ 받고 사는 거야. 하하.”

선구가 익살을 부렸다.

“웁은 소리. 재산이란 것 말이여, 지키기로만 하면 그런 애물도 없는 거여. 그런께 복 많이 받게 시주도 하면서 살아야지 폭만·김 으짜고 광이나 내고 땡기다가는 ‘폭 망’하는…… 하하.”…(중략)…

복만이는 멍그렇게 웃고 있었다. 싫지 않은 웃음이었다. (416~419)

정황상 ‘복만이’와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 온전히 해소되었다고 하기는 힘들다. 그래도 처음 어릴 적 형성되었던 위계와 이에 얽힌 콤플렉스에서 비롯되었을 ‘복만이’의 미묘한 감성이 표준어와 방언을 구사하게 된 사회언어학적 조건에 결부되어 있어서, 갈등 해소의 계기와 언어 전환의 계기가 대응된다는 점은 뚜렷이 예시된다고 할 수 있다. 성원들 간의 갈등이 해소 국면에 이르러 서로 어우러지도록 하는 주요 계기인 ‘웃음’의 난장판에 방언과 비속어, 언어유희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제가 관여되어 있다.

특히 위 중략 대목의 거개를 이루는 ‘선호’의 마을 방송의 담화 양상이 흥미롭다. 다음은 그 일부이다.

“실례했습니다. 김사장은 오늘 저녁 모처럼 옛날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술을 마시시롱 여러 가지 추억적인 이야기와 동시에 허물없는 장난까지도 우정적인 견지에서 하고 놀다가 이런 뜻을 밝힌 것인데, 우리 부락적인 견지에서는 이 이상 영광스런 일이 없더라 이겁다. 그래서 오는 정 가는 정이더라고 내일 오후 다섯 시에 김복만 사장 귀향 환영식과 겸하여 새마을 기금 전달식을 새마을 회관에서 거행하겠으니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419)

‘-ㅁ다’ 같은 종결어미나 ‘-니다’ 같은 연결어미 등이 고스란히 제시된 담화에서 방언의 실감이 한껏 드러난다. 그런 가운데 자주 쓰이는 ‘-적인 견지에서’ 하는 식의 너스레는 억지로 폼을 내어 문자 쓰는 이가 벌이는 어색하고 회극적인 상황을 극화하여 아이러니 효과를 자아낸다. 논리에 따르듯 이유의 고리를 이어가며 ‘복만이’의 회사에 경의를 표하는 듯하지만 속내가 뻔히 보이는 말의 향연이 웃음을 자아낸다. 논리와 무관하게 마을 사람들의 인정에 호소함으로써 ‘복만이’를 궁지에 몰아가는 감성적 담화 전략의 실상이 ‘문자’와 방언을 절묘하게 뒤섞어 회화한 반어적 담화 양상과 맞물린 것이다. 이를 통해 갈등의 해소 국면을 고지하는 서사 문체적 전략이 돋보이는 서사의 대단원이 구성된다.

이처럼 지역어는 대체로 인물 층위의 발화를 실감 나게 기술하여 담화의 현장감과 인물 감성의 섬세한 면면을 드러내어 개성(character)을 창출하는 한편 서사의 감성적 국면을 조율하기 위한 문체 전략에 활용된다. 그런데 서

술자 층위의 서술에서 지역어가 쓰이는 사례가 있어, 소설에 채용되는 양층 언어의 일반적인 구도에 변이가 일어나면서 파생되는 문체 영향의 양태가 논의의 선상에 오른다. 이문구의 「우리 동네 김씨」<sup>18)</sup>는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발화 경계가 모호하여 서술상황을 단정짓기 힘든 대목들에 지역어가 쓰이는 양상이 주목을 끄는 소설이다. 다음을 보자.

전부터 목힐 땅은 있어도 놀릴 터는 없었던 동네가 놀미라고 일렀으니, 사람 풀리느라고 그새 소나기 한죽만 있었더라도 봄것 거둔 터에 뒷그루로 푸성 가리를 부쳐, 벌써 여러 못 슈아 가용푼이나 해 썼을 거였다. 그러나 못자리 버무리며 무살미 하기 앞서, 그나마 날포를 못 넘기며 굶던 가랑비만 서너 물 한 뒤, 보리누름해서부터 입때껏 구름마저 드물었으니, 일 반찬 하계 열무라도 빼어 본다고, 아무리 씨앗을 배게 부어도 푸서리 틈에 개똥참외 움 나듯 씨 서는 게 드물어, 아예 한갓지게 버림치로 돌려 목정이 만들고, 그 위에 호랑이 새끼쳐도 모르게 짓고 옥은 바랭이 개비를 따위나 배어다가 돼지참 주는 집만 해도 여러 가구였다. 그럼에도 밭 놀리기를 남우세스러워하던 사람은 없었다. 버린 자리로 몰라라 했다가 칠석물이라도 비치면 그때 가서 갈아엎고 김장이 나 갈리라고 미워 두었던 것이다.

“날이 워낙 이리렇게 흐르는 몰두 밍근헌 게, 흘랑 벅구 뒤집어쓰면 때는 잘 밀리겠다.”

참이랍시고 불어터진 수제비 한 양재기만 호박잎 덮어 달랑 들고 온 아내가 물길 뚝생이, 뽕쑥 덩불에 굴축스럽게 쭈그리고 앉아, 물을 빨아올리는 호스 끝에 허벅지를 감기고 나서 들으란 사람 없이 중얼거렸다.

“원체 논바닥에 들앉아서 게 좀 벽벽 닭구 가. 암만 더워도 슬 때는 문 닫구 쓰야 개운헌디, 나오기 전버텀 찢더거리니 워디 쉰내나서 허졌더라.”

젓가락 끝에서만 헤엄치는 멀치 서너 마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떠다밀며 국물만 뒤적대던 서방이 털미를 조이며 말했다. (403~404)

인물 간의 대화가 아닌 부분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개입된 서술 양상이 인상적이다. 그 인물이 방언 화자인 까닭에 제삼자의 입장에서 인물의 발화 내용을 그대로 옮긴 담화 상황에 방언이나 속어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중립적인 표현으로 정연하게 서술해야 하는 부분에 표준어에서 벗어난

18) 이문구, 『관춘수필 외』, 두산동아, 1995. 이하 인용문에는 끝에 해당 쪽수만 밝힘.



표현이나 표준어로 분류되더라도 품격에 걸맞지 않은 표현이 나타나서 문제다. 인물의 지각과 발화가 서술자의 서술에 뻔 상황이거나, 최소한 서술자가 인물의 의식이나 감각에 밀착한 태도를 취하여 서술한 상황이어서 서술상황을 확정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통상의 일상적 담화에서보다 더 적나라한 양상으로 지역어가 쓰여 문학어의 품위에 대한 기대가 무산된다. 반면, 서사의 동적 역학이 조성되는 효과가 생겨 문체 효과의 자장이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초점자(focalizer)의 위상에 따라 달라지는 서술상황의 역동성에 걸맞게 구사된 방언과 비속어의 양상이 이 소설의 문체 자질의 구심을 이루고 있다. 표준어이되 규범적 언어라고 보기에 석연찮은 언어 양상이 인물의 발화에서만 아니라 서술자의 서술 층위에서 보이는 흥미로운 현상이 이 소설 전반에 산포해 있다. 방언처럼 보이는 표준어, 조어(造語)처럼 보이지만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 어휘, 속된 표현처럼 보이지만 차원 높은 언어 감각이 배인 표현 등, 이 소설 자체가 지역어 층위의 담론 국면이며 양층언어 구사에 따른 코드-전환의 표지를 문체 구성의 전략에 적용한 사례라 할 만하여 의의가 남다르다.

한 가지 더 재미 있는 대목은, 도량형 명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해프닝을 이야기한 결말 부분이다.

“알면 지랄헌다구 몰으유? 평(坪)두 있구 마지기두 있구 배미두 있는디, 해 필이면 알아듣기 그북허게 핵타르라우 헐 건 똤나 이게유.”

“천동면이 이렇게 촌인가…… 저런 딱헌 사람두 다 있으니. 나 보슈. 국가 시책으루, 미터법에 의하야 도량형 명칭 바뀐 지가 원젠디 연태까장 그것두 모르는겨? 당신이 시방 나를 놀려 보겠다—— 이게여?”

부면장은 당장 잡도리할 듯이 눈을 부라리며 언성을 높였다. 곁에 앉은 남 병만이가 팔꿈치로 집적거리며 참으라고 했으나 김도 주눅들지 않고 앉은 채로 응수했다.

“내 말은 그렇게백이 안 들리유? 저 핵교 교실 벽뽀기 좀 보슈. 똤라우 써 붙였슈? 나라 사랑 국어 사랑…… 우리말을 쓰자는 것두 국가 시책이래유. 옛날버텀 관공리 말 다르구 농민들 말 다른 게 원칙인 게유. 천동면이 이렇게 촌인가…… 끄——”

...(중략)...약간 수그러들자 부면장은 언성을 낮추어 말했다.

“일 핵타는 삼천 평입니다. 앞으루는 이백 평이니 말가웃지기니 허구 전근 대적인 단위는 사용을 삼가 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427~429)

같은 표준어라도 공식적으로 용인되는 표현이 있고 사적이고 일상적인 자리에서 쓰이거나 특정 층에만 국한되어 쓰이는 표현이 있다. 표준어와 방언 사이의 위계 못지않게, 표준어로 인정되는 언어 범주 내에서 세워진 언어적 지위의 격차 또한 지역어의 문제 상황과 관련된다. 위에서처럼 이른바 ‘문자’를 쓰거나 외래어나 외국어를 앞세워 쓰거나 공식적인 자리에 어울리는 어휘를 쓰는 것이 더 격조 높은 언어 수행의 경우로 인정된다는 논리가 통용되기 십상이다. ‘근대 대 전근대’의 논쟁 차원으로까지 비화되며 중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근대적 논리중심주의(logo-centricism)의 힘이 저 사소한 언쟁의 장에도 힘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중심에 밀려 가치와 의미가 없거나 심지어 음수항(-)으로서 가치를 창출하기는커녕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폄훼되는 항에 지역어가 놓인다는 것이다. 문자 쓰기를 둘러싼 언쟁에서 엿보이는 언어적 지위에 대한 이념의 편린에 상응하는 서사적 초상이 위와 같다. 이러한 서사적 담화 상황의 구성은 사건 정황의 실감과 장면의 감각적 국면이나 인물의 감성적 디테일을 구현하는 데 효과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역어 자체의 역동적인 자질과 이를 구성하여 전하는 서술상황의 역동성이 또한 문체 감성을 드높인다.

지역어의 문체 영향은 서사 회로에 관여된 수다한 분기점과 기제의 중층, 서사 요소들이 이루는 다차원의 담화 역학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물과 서술자 층위에 지역어와 표준어의 구사 발원점을 일방향으로 대응시킬 수는 없다. 가령 방언 화자이지만 표준어를 기조 언어로 구사하는 담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여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역학적 전략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상황에서 특정 상대방과 대화하는 정황에 방언이 가미되는 코드-전환의 징후가 드러나는 것이다. 방언이 쓰이는 정도도 일정하지 않고 정황에 맞물려 조율되기 십상이다. 서사적 소통 회로의 단말에 해당하는 실제-독자의 판독 가능성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담화 상황의

실감을 높일 것인지가 관건으로 작용하여 서사 문체의 조종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다. 독자가 특정 지역 방언을 모어로 습득한 이라면 되려 표준어보다 방언의 디테일을 잘 살려 기술된 서사를 관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저러한 조종 국면조차도 일정한 선에서 단정지를 수는 없다. 따라서 서사 소통의 단말에 관련된 소통의 전략으로 마련된 문체적 효과는 방언과 표준어를 넘나드는 담화 양상에 대한 다층적 이해의 여지를 부른다. 이청준 작 「눈길」<sup>19)</sup>의 몇 대목을 대비해 보자.

“그래, 일이 그리 바쁘다면 가 봐야 하기는 하겠구나. 바쁜 일을 받아 놓고 온 사람을 붙잡는다고 들을 일이겠냐.”

한동안 입을 다물고 앉아 있던 노인이 마침내 체념을 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항상 그렇게 바쁜 사람인 줄은 안다마는, 에미라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도 편한 잠자리 하나 못 마련해 주는 내 맘이 아쉬워 그랬던 것 같구나.” (391~392)

“이럭저럭 지내다 이대로 가면 그만일 육신, 이제 와 늘그막에 웬 판세상을 보겠다고…….”

한번은 또 치질기가 몹시 심해져서 배변이 무척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수술 같은 걸 권해 본 일도 있었다.

노인은 그때도 역시 비슷한 대답이었다.

“나이를 먹어도 아녀자는 아녀자다. 어떻게 남의 눈에 굶은 데를 보이겠더냐. 그냥저냥 참다 갈란다.”(393)

“집집마다 모두 도단 아니면 기와들을 엮는단다.”(394)

“동네가 너도나도 집들을 고쳐 짓느라 밤잠들을 안 자고 저 야단들이구나.”(394)

“왜 우리집이라 말썽이 없었더라냐.”

노인은 여전히 남의 말을 옮기듯 덤덤히 말했다.

“이장이 쫓아와 땀을 들이고, 면에서 나와서 으름장을 놓고 가고…… 그런 일이 한두 번뿐이었으면야…… 나중엔 숫제 자기들 쪽에서 사정조로 나오더라.”

19)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외』, 두산동아, 1995. 이하 인용문에는 끝에 해당 쪽수만 밝힘.

“그래 어머니 뭐라고 우겼어요?”

나는 아직도 노인의 진심을 모르고 있었다.

“우길 것도 뭣도 없는 일 아니었냐. 지놈들도 눈깔이 제대로 박힌 인간들이 것인다…… 사정을 해오면 나도 똑같이 사정을 했더니라. 늙은이도 사람인디 나라고 어디 좋은 집 살고 싶은 맘이 없겠소. 맘으로야 천번 만번 우리도 남들 같이 기와도 입히고 기둥도 갈아 내고 싶지만 이 집 꼴을 좀 들여다보시오들, 이 오막살이 흙집 꼴에다 어디 기와를 얹고 말 것이 있겠소…….”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몇 번 더 발길을 스쳐가더니 그담엔 호지부지 말이 없더라. 지놈들도 이 집 꼴을 보면 사정을 모를 청맹과니들이라더냐?”(395~396)

작중 정황으로 미루어 ‘노인’은 외지에서 살아본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표준어를 학습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다. 그렇다면 ‘-겻’보다는 ‘-것-’이 더 그럴싸한 표현 효과를 낳는다. 그런데 둘 모두가 번갈아 쓰이고 있다. 이들 말고도 어휘나 문장 층위에서 정연하게 다듬어진 표현이 기조를 이루지만 구어 양상이 덜 정제된 듯한 표현이 때로 쓰이고 있어, 양층언어 간 코드-전환에 의한 문체 역학의 효과가 빛어진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소설의 기조 언어가 표준어, 그도 세련하고 정제된 표준어이며, 여기에 방언을 가미함으로써 모종의 문체 효과를 자아내는 기제를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인물이 정서를 곡진하게 토로하는 상황과 방언의 실감이 어우러지는 국면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눈발이 그친 그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돌이 걸어진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뿐이었겠냐.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굵이굵이 돌아온 그 몸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의 목소리나 따듯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륵 날아올라도 저 아그 뉘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굵이굵이 외지기만 한 그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돌이 온 길을 이제 이 몸쓸 늙은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겠냐. 오목오목 디더 논 그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을 밟고 왔제…….”

좀체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노인’이 말문을 트고 자식을 떠나보내고서 눈길을 따라 힘겹게 돌아오던 때의 곡진한 심회를 추상(追想)하여 담론하면서 그간 표준어와 정제된 표현에 호도되었던 방언과 감성을 직서한 표현이 문면에 드러난다. 그리한다고 해서 방언 화자가 토로하는 담화의 실감 난 정황이 온전히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의 양층언어 역학의 기조가 바뀐 것은 분명하며, 지역어의 감성적 국면에 대한 방증이 더해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표준어와 지역어는 그 경계가 선명하고 그 경계에 두텁고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넘나들 수 없는 구도에 던져져 있지 않다. 더구나 표준어가 중심의 영역을 차지하고 지역어가 주변에 내쳐진 형국일 수는 없다. 그 경계는 문턱 정도로 갈려 있어 조건이나 맥락이 바뀌어 넘나들 수 있거나 때로 구도가 재편될 수 있는 여지에 노출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한 여지를 소설에서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담화 상황의 면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어에 관여된 사회언어학적 조건들과 언어적 감성의 차원들이 영향을 끼쳐 자아내는 서사 문체의 역학에 계속 관심해봄직하다.

## 5. 지평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의 두 국면이 부르는 논항은 수다할 뿐만 아니라 인문 현상의 구심을 이루는 언어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거점을 이룬다. 이는 특히 언어를 매재로 한 예술[liberal arts] 활동인 문학의 자질을 이해하는 데 거창한 단서를 제시한다. 인간 존재의 한 차원을 점하는 문학 능력(literary

competence)이 과연 있으며 있다면 어떠한 실체적 형상을 하고 있는지 묻는 이라면 문학의 매체이자 주요 요소인 문학어의 자질에 대해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편적이고 항구불변의 문학적 실체(literary substance)를 인정하고 이를 찾는 데 문학론의 거점을 두는 이라면 모를까, 수다한 분기와 다채로운 형태로 분화된 문학 작품과 이를 둘러싼 문학 현상을 해석하는 데서 문학론의 해법을 구하는 이라면, 문학을 매개하고 문학을 통해 구현된 언어의 수행 차원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으며, 문학어만 지니는 고유의 본질이나 형상 같은 것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sup>20)</sup> 이 맥락에서라면 '지역어와 문학'이라는 논항에 대해, 중앙어·표준어에 대응되는 지역어·방언의 수행적 국면에 부쳐진 화행의 다양하고 다기한 국면들에 대한 이해에 수렴되는 문체 논의에 관심이 쏠리게 마련이다.

지역어는 중심의 가치에 대응한 구심적 가치의 구현과 확산에 기여하는 언어 수행 기제를 통해 탈경계의 해체적 전략에서 파생된 문체의 역동적 구성과 감성적 영향에 대한 사유의 여지를 드넓힌다. 언어를 통해 세계의 다른 면을 보이거나 새로운 면을 창의하는 문학의 역할에 관해서도, 표준어와 지역어의 경계를 넘나들며 구성되는 담론을 통해 적중되는 문체 전략이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된다. 지역어는 고급의 문학어에 토속적 정서나 실감 따위를 가미하는 조미료나 단말의 부속품 정도가 아니며, 그 자체가 문학어의 다채로운 문체적 국면을 구성하는 데 제 자질을 능동적으로 공여하여 문학 작품의 감성적 자질을 고양하고 역동적 텍스트성을 짓는 데 기여하는 주 재료이자 동력 기제이다.

▮주제어 : 지역, 지역어, 지역성, 방언, 문체, 서사 문체, 문체 역학, 감성

20) 피쉬(S. Fish), 앞의 책, 108~109쪽 참조.

### 〈참고문헌〉

- 강희숙, 『음운 변이 및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전북대대학원, 1994.
- 김상태, 『문체의 이론과 해석』, 집문당, 1993.
-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바흐진의 문학이론』, 문학과 지성, 1988.
- 김옥동 편, 『바흐진과 대화주의』, 나남, 1990.
- 김 현, 『문학사회학』, 민음사, 1987.
- 박갑수, 『현대문학의 문체와 표현』, 집문당, 1998.
- 이기문 외, 『문학과 방언』, 역락, 2001.
- 이익섭, 『사회언어학』, 민음사, 1994.
- 이정록, 『국어 경어법과 사회언어학』, 월인, 2002.
- 장태진, 『국어 변말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1998.
- 한국소설학회 편,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 새문사, 1996.
- Bakhtin, M. M.,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 Hough, Graham, 이승근·김철수 역, 『문체와 문체론』, 학문사, 1981.
- Lange, B. S., 소만섭 역, 『언어 화용론』, 한국문화사, 2001.
- Nida, Eugene A., 송태효 역, 『언어간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고려대출판부, 2002.
- Wardhaugh, Ronald, 박의재·정미령 역, 『현대 사회언어학』, 한신문화사, 1999.
- Allen, Harold B.(ed.), *Dialect and Language Variation*, Academic Press, 1986.
- Auer, Peter (ed.), *Code-Switching in Conversation : Languages, Intraaction and Identity*, Routledge, 1998.
- Bakhtin, M. M., Caryl Emerson & Michael Holquist (ed.), Vern W. McGee (trans.), *Speech Genres & Other Late Essays*, Texas UP., 1986.
- Bakhtin, M. M., Michael Holquist (ed.), Caryl Emerson & Michael Holquist (trans.), *The Dialogic Imagination*, Texas UP., 1981.

- Bell, Roger T., *Sociolinguistics*, St. Martin's Press, 1976.
- Bradford, Richard, *Stylistics*, Routledge, 1997.
- Ching, Marvin K. L. (ed.), *Linguistic Perspective on Literature*, Routledge & Kegan Paul, 1980.
- Eckert, Penelope and Rickford, John R. (ed.), *Style and Sociolinguistic Variation*, Cambridge UP., 2001.
- Ehrlich, Susan, *Point of View : A Linguistic Analysis of Literary Style*, Routledge, 1990.
- Erzgräber, Willi (Hrsg.), *Stilfragen*, Gunter Narr Verlag, 1992.
- Fish, Stanley,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y*, Cambridge : Harvard UP., 1980.
- Fowler, Roger, *Literature as Social Discourse*, Batsford Academic and Education Ltd., 1981.
- Harvey, W. J., *Character and the Novel*, Cornell UP., 1965.
- Hellinger, Marlis and Ammon Ulrich (ed.), *Contrastive Sociolinguistics*, Moutonde Gruyter, 1996.
- Hendricks, William O., *Grammars of Style and Styles of Grammar*,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76.
- Hickey, Leo (ed.), *The Pragmatics of Style*, Routledge, 1990.
- Hudson, R.A., *Sociolinguistics*, Cambridge UP., 1980.
- O'Neill, Patrick, *Fictions of Discourse : Reading Narrative Theory*, Toroto UP., 1994.
- Pütz, Martin (ed.), *Language Choic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7.
- Sell, Roger D., *Literary Pragmatics*, Routledge, 1991.
- Stanzel, Franz K., *Theorie des Erzählens*, 7.Auflage, Vandenhoeck und Ruprecht, 2001.
- Stickel, Gerhard (Hrsg.), *Stilfragen*, Walter de Gruyter, 1995.
- Trudgill, Peter(ed.), *Applied Sociolinguistics*, Academic Press, 1984.
- Wales, Katie, *A Dictionary of Stylistics*, Longman, 1989.



[Abstract]

## An Essay on the Affective Dynamics of Narrative Stylistics and Local Languages

Jang, Il-gu

In this argumentative essay, I will attempt to deconstruct a discursive practice in the arguments on the standard or central language that is discriminated against the local or dialectal languages. Language as a substantial notion is not useful to investigate the various aspects and features of dynamic process and mechanism in the communicational practices or linguistic performances. Especially the stylistic features of the dialects used in the novels are relative to the affective or emotional processing circuits of narrative discursive communications.

The stylistic structure of literary language abstracts the diversities of varicolored senses and multifaced stylistic affection derived from dynamic mechanism of linguistic performance. We have to reconstruct methodologies for the intersubjective sympathetic operation to interpret narrative discourses with constitutive notions. I attempt to optimize validities of the argumentative essay through analyses and interpretations of some distinctive Korean novels and suggest the methodological perspectives in the affective stylistics of narrative dialects.

**【Key words】** : local language, dialect, linguistic performance, sociolinguistics, narrative stylistics, affective stylistics, affection, emotion, aesthetic sense, aesthetic feature.

장일구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communit@jnu.ac.kr

---

---

이 논문은 2012년 10월 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12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